

2015학년도 경기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기출문제

A 형



◆ 유의 사항

1. 답안 앞면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답안을 작성할 것.
2.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3. 답안 작성과 수정은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할 것.
(수험번호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4. 답안은 어문 규정과 원고지 사용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할 것.
5. 가급적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6.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
7. 아래의 경우는 '0'점 처리함.
 - 양호 표시나 낙서 또는 기타 불필요한 표기를 한 경우.
 - 1번 문항과 2번 문항 답안을 바꾸어 작성한 경우.
 - 흑색이 아닌 필기구 또는 연필로 작성한 경우.
(수험번호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 적색 펜이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수정한 경우.
 - 자신의 성명 또는 신분이 드러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기출문제 (A형)

[문항 1] 제시문 **ㄹ**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가**의 ㉠이 의미하는 시의 특성에 대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것이 **나**의 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750 ± 50자)

가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악시 볼에 떠오르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고등학교 문학』 —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구에 그들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 낼 수 없는 몇 그루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고등학교 국어』 —

다

근대 사상가들은 세계를 구성하는 실체는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입자’이며, 자연 세계는 이러한 입자들의 분리와 결합 등의 운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근대 과학에서 이러한 입자들의 운동과 변화는 기계론적 인과 관계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데, 자연의 변화를 기계론적 인과 관계로 파악한다는 것은 곧 자연을 생명이 없는 물질적 재료로 간주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된다.

데카르트는 동물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기계에 불과하다는 ‘동물 기계론’을 주장하였고, 라 메트리(La Mettrie)는 『인간 기계론』에서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기계에 불과하며, 인간의 정신은 뇌의 물질적인 작용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중략)

세계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들의 관계라고 보는 근대 과학의 입장은 자연스럽게 환원주의로 연결된다. 즉, 자연의 모든 운동과 변화는 물리학적 개념의 틀로 환원되어 설명되고, 화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 현상까지도 물리학적 개념으로 설명된다.

서구 근대 문명에 비판적인 독일의 한 철학자는 “계몽주의 시대 이래 근대 사회에서는 생물이 무생물과 동일시되었다.”라고 지적하였다. 즉, 근대 과학의 사유 구조 속에서는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가 물리학이라는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 포착됨으로써 죽어 있는 입자들의 기계적인 인과 관계로 환원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 『고등학교 전통 윤리』 —

[문항 2] 제시문 **가**의 문제를 **나**의 관점으로 이해했을 때, 그 문제가 **다**의 원리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술하시오. (750 ± 50자)

가

2000년 중국은 우리 정부가 중국산 마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마늘 수입 관세를 대폭 올린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산 휴대 전화 수입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한·중 양국은 마늘 분쟁을 타결지으면서 중국산 마늘을 30%의 낮은 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약속한 분량은 모두 수입하기로 했으나, 민간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구매하기로 한 물량은 가격이 맞지 않아 수입이 절반밖에 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중국은 한국산 휴대 전화 수입을 다시 중단하겠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농림 수산부는 “마늘 생산 농가를 고려해서라도 마늘을 추가 수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 자원부는 “통상 마찰만은 피해야 한다. 1,000만 달러를 아끼려다가 6억 7,000만 달러를 날리는 꼴이다. 이번 일로 소탐대실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2000년 국내 휴대 전화의 중국 수출액(홍콩 포함)은 1억 2,000만 달러, 폴리에틸렌 수출액은 5억 5,000만 달러를 넘었다. 반면 중국산 마늘 수입량은 1,000만 달러였다.

— 『고등학교 경제』 —

나

전체적으로 국민 경제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 수지, 특히 경상 수지의 흑자가 매우 중요하다.

일단,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야 해외 부문에서 들어오는 물이 빠져 나가는 물보다 많아서 'GDP 용기'의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GDP가 성장하여 국민에게 돌아갈 전체적인 떡의 크기가 커져야만, 국제 무역으로 인해 손해 보는 부문에게도 장기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국제 수지 흑자



<그림 2> 국제 수지 적자

— 『고등학교 경제』 —

다

민주 사회에서 시민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각자가 처한 입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되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다수의 의견을 물어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다수결 원리이다. 모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의견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다수결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 『고등학교 정치』 —